

“늦게나마 입은 웨딩드레스에 마음이 몽클하네요”

저소득·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주관
4쌍 커플 미뤘던 백년가약 맺어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부부로 산 지 오래됐지만 늦게나마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5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로비에는 특별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로 붐볐다.

8번째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이 열린 것이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중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4쌍의 커플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르게 된 이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보였다.

예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식전 공연으로 리더스플루트 앙상블이 가수 비비의 ‘밤양갱’ 노래를 연주하며 결혼식 막이 올랐다.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이 5일 광주 북구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에서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북구청 등 공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문인 북구청장과 부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본 예식이 시작되자 식장 입구에 조명이 켜지며 8명의 신랑과 신부는 차례대로 입장했다.

하객들은 입장하는 부부를 보며 힘찬 박수와 환호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만감이 교차한 듯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부부도 보였다. 진정자(58)씨와 부부가 된 지 10년째

인 신랑 이성권(69)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오늘만큼은 신혼부부처럼 즐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식장을 찾은 최

선희(70) 씨는 “친동생처럼 막역했던 지인이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행복만 가득한 결혼 생활 즐겼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7년을 함께한 다문화 가정 부부도 이날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신랑은 “오늘 예쁘게 단장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부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아내가 좋

아하니 괜히 뿌듯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될 것 같다”며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심재섭 전 북구의회 의장은 주례사를 통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오늘 결혼을 하게 된 네 쌍 부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으로 진행된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검소한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식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웨딩드레스, 리더스플루트앙상블, 준구스님, 그가사랑하는 순간 바이수플라워, 진도솔비치 등 기관 및 민간 업체로 구성된 우리두리작은결혼식 추진단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준비됐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8회, 20쌍의 부부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 33도… 1주일간 늦더위 이어진다

광주·전남에 늦더위가 1주일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이 최고 33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음에 따라 북쪽의 한기가 차단되고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더위는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계속되는 늦더위에 전남 일부지역에 폭

염특보가 잇따라 발효되고 있다.

5일 오후 2시를 기해 나주·고흥·강진·함평·영광 등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날 오전 10시에도 해남·완도·무안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광양·영암·담양·곡성·구례·화순·순천·신안(흑산면 제외)은 30일부터 해제되지 않고 폭염주의보 이어져와 광주·전남 16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니 온열질환에 대비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조선대 캠퍼스에서 쓰러진 대학생… 가까운 응급실 못가 중태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해당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32분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의 한 단과대학 인근 벤치에서 이 학교 학생 A(20)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여러명의 술병이 놓인 벤치에 쓰러져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발견한 뒤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조선대 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원격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A씨를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으나 응급실 측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이 두 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연락해 A씨를 이송했다.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교수 7명이 2명씩 3교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응급실에는 내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심

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호흡을 되찾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부터 대학교 동아리 농촌봉사활동 뒤풀이에 참석해 다른 학생들과 학교 근처 식당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외상 등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지 기자

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잡고 보니 마약 투약

차에서 펜타닐 등 마약 3종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광주 남부경찰은 전날 오전 4시35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외출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질의에 응설수설하는 A씨를 수감하게 여겨 간이 시약검사를 했고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 차 안에서 성인 7명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펜타닐 등 마약 3종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마약을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

학기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으며 일한 시간강사들이 조선대학교를 대상으로 낸 퇴직금·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등 교원 8명이 학교 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조선대가 원고 8명 중 7명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연차휴가 수당 27만 1200원~3930만 9899원 등 총 1억 6188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인 교원들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 초빙 객원 교수로 일했다.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는 형태로 근무했으며 2019년 8월 31일자로 퇴직했다. 하지만 첫 근무일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동안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대학은 이들 교원의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해당하고, 계속 근로기간 역시 1년 미만인 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지나 퇴직금 등을 요구한 만큼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도 했다.

재판장은 “실제 강의시간(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등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 그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직 교원들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어 “1명을 제외하고는 원고 7명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기자

출산한 미숙아 9시간 방치·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자택에서 홀로 조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

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조산한 뒤 외출,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 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